

**안녕하세요. 장로회신학대학 제 51기 견습선교사 김혜민입니다.**

저는 2019년 1월~12월까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선교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아프리카'대륙의 선입견 때문인지 출발하기 전, 많은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는데 도착하고 1년을 살다 보니 이러한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아름답고 평안이 넘치는 땅이었습니다. 동쪽으로는 아름다운 인도양 바다와 접해 있고 북쪽으로는 높은 킬리만자로 산이 웅장하게 위치해 있으며 유명한 '세렝게티 초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인도양 바다>



<킬리만자로 산>



<세렝게티 초원>

### <사역보고>

#### 1. Grace Nursery School 유치원 사역

- 제가 맡았던 주사역은 유치원 사역이었습니다. 이 유치원은 담당 선교사님 이셨고 EMA 선교회 디렉터이신 김용주 목사님께서 세우신 유치원으로 기독교 유치원입니다. 3~7세 아이들 125명(2019년 12월 기준)과 7명의 현지 선생님, 5명의 현지 Staff들과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 각 월마다 체육대회, Bible Camp, 동물원 견학, 놀이공원 견학 등등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으며 12월에 진행되는 졸업식을 가장 큰 행사로 여기고 있습니다.
- 저는 전반적인 행사 진행, 준비를 담당하였고 현지 선생님들과 함께 고민하며 더 좋은 교

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 5-7월 동안 3-5세 아이들과 함께 체육수업을 진행하였고 12월 졸업식 관련하여 태권도 공연도 가르쳤습니다.



## 2. 음악 사역

- 베이스기타를 배우고 싶어하는 한 현지 청년과 함께 음악 사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도 부족한 실력이지만 많은 예배에서 예배자로 섬겼던 것을 경험 삼아 이 청년도 베이스로 예배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 3월부터 시작된 레슨은 11월 말까지 진행되었고 그저 '감'으로 연주하는 것이 아닌 악보와 코드를 보고 어떤 찬양이든 바로 연주할 수 있도록 연습하였습니다. 그 결과, 6월 부터 청년은 교회 찬양팀에서 베이스로 섬기기 시작하였고 배워가는 과정이었지만 한 번의 예배를 섬기기 위해 열심히 연습하는 청년의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이를 통해 탄자니아에 아름다운 예배자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기를 기대했던 시간이었습니다.





### 3. 에바다교회 주일학교 사역

- 에바다 교회는 디렉터 선교사님이신 김용주 선교사님이 세우신 11개의 교회 가운데 가장 큰 교회입니다. 주로 주일에 에바다 교회를 갔었는데 약 30명 가량의 아이들이 오는데 제대로 된 주일학교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아이들과 함께 주일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가장 먼저 부딪힌 큰 문제는 언어의 장벽이었습니다. 영어로 수업을 하는 유치원 사역과는 달리 주일학교는 탄자니아의 현지어인 '스와힐리어'로 준비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번의 주일학교를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현지 성경공부 책을 사서 함께 동역 하는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 공부하고 번역하는 과정을 거치며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처음 접해보는 스와힐리어를 배우고 익히는 과정은 매우 어려웠으나 이로 인해 현지 언어 실력이 조금 향상되었습니다.
- 주일학교 프로그램은 주로 시각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미디어와 접촉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성경 이야기를 시각적 자료를 통해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그림 자료와 색칠 공부, 사자 가면 꾸미기 등등 아이들이 보다 성경을 시각적으로 배우고 더욱 흥미 있는 이야기로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 후원해주신 선교비로 매주 아이들의 간식도 제공하였습니다.
- 시작하기 전부터 언어의 장벽 문제, 현지 선생님들과 관계 문제, 프로그램 개발 문제 등등 여러 어려움과 괜한 두려움에 유독 이런 저런 걱정이 많았던 사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사역을 시작하고 즐거워하는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걱정은 기쁨으로 변화되었고 두려움은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나의 두려움을 뛰어 넘어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1년간 선교를 다녀오면서 그동안 막연하게 생각해 오던 선교의 모습이 조금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열정과 패기로 나아가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이와 더불어 나의 준비됨도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교에 대한 열정, 복음의 확신과 더불어 이를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한 나의 준비된 실력이 있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제 삶이 이러한 선교 사역을 위한 준비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학교에서 신학을 통해, 사역지에서 아이들을 만남을 통해, 또 앞으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 결국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달려가야 할 제가 더욱 준비 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겪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탄자니아에서 현지인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시간이 참 행복이었습니다. 선교는 그 나라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는 깨달음도 함께 얻었습니다. 앞으로 제 삶이 '함께 살아가는 선교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함께 걷고 함께 뛰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삶을 살겠습니다. 제 작은 날개 짓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제 삶 주위를 시작으로 온 열방까지 확장되길 소망합니다. **Mungu akubariki** 😊

